

# “승리 확실한 선거구 한군데도 없다”

### 도내 정가 분석...다자간 대결구도로 판세예측 어려워

“확실한 선거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경합입니다.” 제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도내 정가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내뱉는 말이다.

선거는 소위 “까뽀야 안다”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게 당연하지만 “4.13 총선은 지난 역대 선거에 비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우선 이번 총선은 양당 구조에서 다자간 구도로 바뀌면서 판세를 예측할 수가 없다

크게 보면 압도적 지지양상이 없어 균형 상태로 보인다.

도내 당내 관계자들 역시 “10개 선거구 가운데 1~2개를 제외하곤 대부분 선거구가 경합 지역”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이전 총선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 이전 총선에선 대체를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다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에 치러진 역대 총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혼전 지역이 늘어나기까지 한다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다자간 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20대 총선은 5~10%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로 기록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비워도 다시 한번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하 절반인 5석은 고사하고 3석도 잡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 순위로 인해 “전혀 할수도 있겠다”는 경악스

런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최종적인 조직력 싸움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국민의당도 싫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 때문이다.

한 정가 관계자는 “민심의 추가 현재는 좌우를 오가다가 결국 어느 후보가 조직력을 많이 갖고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누가 다소 유리해 보인다고 말할수 없다. 선거는 매순간 달라질수 있는 만큼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신광영기자

### 강봉균 “유승민 공천 내역이 아니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3일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에 대해 “그건 내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원장으로서 유승민 의원 공천 보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유 의원 공천 문제가 선거전과 무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무관하지 않은 것 중에 내가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다”며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보면 된다. 공천 문제는 관여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의 차별점에 대해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우리 정책을 보면 이렇게 다르구나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성주기자

## 새누리 현역 7명 탈당 가능성...의석 과반 붕괴

### 공천탈락 반발 김태환 · 조해진 · 권은희 등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앞둔 23일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 중 최대 7명이 무더기 탈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천 탈락에 반발 새누리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김태환 조해진 권은희 안상수 진영 강길부 의원 등 6명이 탈당했다. 이중 김태환 의원을 제외한 5명이 비박계다. 1호 탈당자는 공교롭게도 친박계 중진 김태환 의원이었다.

조해진 의원은 유승민계에서는 첫 탈당자로 기록됐고, 이어 같은 유승민계 권은희 의원도 대구 비박계에서는 처음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원조 친박이자 3선 중진인 진영 의원은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3선 비박계 강길부 재선의 안상수 의원도 무

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적 변경 시한을 후보등록일 시작 하루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중 새누리당을 공식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탈당할 경우 그와 행동을 같이 해 온 유승민계 이종훈 김희국 류성걸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구 유일의 친이계 주호영 의원과 또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도 이날 중으로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재오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고위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고위에서 컷오프 결정이 반복되지 않는 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을 시사했다.

이밖에 김무성 육실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 배제된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알려졌다.

이처럼 이날 하루만 최대 7명의 현역이 탈당을 준비중에 있다.

17석으로 공천을 시작한 새누리당은 이미 6명이 탈당해 1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23일 현재 국회 재석의원 수는 282명으로 새누리당 과반 초과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147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7명 중 5명만 탈당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새누리당의 과반 초과 의석은 붕괴되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파동을 겪으며 108명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이성주 기자

## 새누리 최고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 문제있다” 재의 요구

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이 문제가 많아서 어제 국민배심원단이 부결해 재의를 요청했다”며 “배심원단의 지적이 다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취약지역인 광주 전남에서 당을 위해 고생했던 열혈 당원이 있는데 하나도 배려가 안됐다”며 “그래서 큰 잘못이다 지적해서 재의하라고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원우철 원내대표도 “권역세 후보(경기 성남시분당구갑)만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보류가 됐다. 공관위가 다시 논의해 추후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성주기자

### 김광수 예비후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공약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갑)가 ‘뉴이노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그간의 재래시장 육성 방식이 시설투자 등을 통해 무리하게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을 시도한 단순한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들며 “전주 전통시장만의 특성, 사람이 있고 시장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을 브랜드와 하기 위한 도전이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 “남부시장의 경우 전주천과 연계해 ‘로컬푸드 특성과 전통시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해 시스템 운용 장비기도 우미 배송, 고객센터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전국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최형재 예비후보,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 지지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을)는 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책 및 공약안에 대해 적극 지지와 수용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환경파괴로 인해 인 간이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 문제는 국민의 안전,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최후보는 “환경운동연합등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 덕분에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북지역 환경·생태·기후·에너지 등 녹색정책 및 공약을 제안했다.

/신광영 기자

### 정동영 예비후보, 더민주 정체성 혼란 비판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병)는 더민주의 정체성 혼란과 특정 계파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 예비후보는 더민주가 사태에 대해 “바뀌야 할 패권주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야 할 진보노선은 온데 간데없다”고 말하고 “짜르라고 조롱받는 여야를 넘나든 비례대표 전문가 김종인 대표에게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8세기 조선시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바로 어제까지 김종인 대표를 영입된 절대군주 ‘후한무지’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던 논객들도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비례대표 2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광영기자

### 김훈진 예비후보, “농어촌 난방비 부담 줄이겠다”

김훈진 예비후보(김제,부안)는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 되는 석유류에 대해 면세율을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10% 미만으로 농어촌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김훈진 예비후보는 “지난 2013년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율을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 김성주 예비후보, 국민 노후소득 보장 활동 1위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9대 국회의원 중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1위 의원에 선정됐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지난 21일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를 발표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30여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평가 대상 27명 의원 중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1위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광영 기자

### 박종길 예비후보,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제시

새누리당 박종길 익산을국회의원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23일 오전 10시경 익산시 어양동 650-4번지에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익산지역 체육단체(경기연맹)관계자, 스포츠동우회, 숙박업 등 (가칭)스포츠산업 범추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익산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통큰 예산 확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요 공약 중 정부와 지역의 신 성장 산업중 하나인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부각 돼 이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박종길 예비후보는 “중장기적으로는 메가 스포츠행사 개최 유명스포츠 육성 고 부가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여 관매나 관서비스 선정성을 강화해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2조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반드시 유발 하겠다”며 크게 기대해도 된다면서 당선으로, 가시적 효과를 꼭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연의지를 피력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4.13 선거 RUN·RUN·RUN

### 장세환 예비후보,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들 “더민주 후보 돕고 있다” 의혹 제기

국민의당 장세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을)가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들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장 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더민주 후보 당선을 돕고 있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자체만으로도 공명선거 분위기를 크게 흐린다고 했다.

장 후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선거 때 도왔던 캠프 측 측근들이라면 문제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측근 단속이 요구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 채용목 예비후보, 청소년해양체험센터 건립 공약

군산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채용목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해양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을 고군산군도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채용목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군산 군도는 선유도와 아미도, 등 총 63개의 섬으로 만들어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현재 고군산연결도로 공사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청소년 해양안전체험센터 부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센터를 비롯해 고군산군도 지역에 청소년 유스호텔 건립과 청소년수련시설들을 조성해 교육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 후보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안전체험센터 건립은 군산을 넘어 전라북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군산사와 협의해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예비후보로서 선심성 공약이 아닌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어두운 군산경제에 환한 빛이 비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송동 종로상회 1층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개소식을 가진 채용목 예비후보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총선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산=문정근기자



### 임정엽 예비후보, “로컬푸드 확대 발전 시키겠다”

국민의당 임정엽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완주진무장)는 23일 완주군 봉동읍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등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임후보는 “민생정치를 실현해 로컬푸드 성공시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완전무장을 로컬푸드 수도’로 육성하고 ‘사회경제연대의 1번지’로 만들겠다. 또 전북정치를 복원해 정당하게 전북의 몫을 되찾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 새누리당, 전북 출신 비례대표 3명 추천

23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광주출신으로 전북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신보라(33) 청년이여는미래 대표가 7번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김제출신인 김철수(72) 전 재정위원장이 18번을, 송기순 전 일환경 대표는 2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22일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2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45명을 전북도당이 확인한 명단이다.

신보라 대표는 1983년 광주 출신으로 2006년 전북대 교육학과 졸업 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재정위원장은 김제출신으로 이과고를 나와 전남대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 안지병원장을 맡고 있다.

송 대표는 새누리 비례대표 안정권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비례대표는 총 47명으로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안정적인 비례대표 당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20석, ▲더불어민주당 15석, ▲국민의당 7석, ▲정의당 5석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민형기자